현대북한연구, 23권 2호(2020), © 2020 북한대학원대학교 심연북한연구소, pp.123~163
http://dx.doi.org/10.17321/rnks.2020.23.2.004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에 나타난 사회문화적 변화 연구

〈아리랑〉(2005)과 〈빛나는 조국〉(2018)을 중심으로

정해영*

2002년부터 진행해 오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이 2013년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후, 2018년 새로운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과 2019년 〈인민의 나라〉가 새롭게 발표되었다. 사회주의문명국,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김정은 정권에서 극장국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대집단체조가 부활되었다.

김정은 정권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에서 인민들은 〈아리랑〉과 달리 개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는 개체로 인정받는 등 이전과 다른 위상을 갖는다. '국가'는 더 이상 '김일성조선'처럼 위대하고 특별한 개인의 업적이거나 점유물이 아니며 인민을 위해 존재하고 정상국가를 지향한다.

김정은 정권은 권력의 안정적 세습을 위해 대집단체조와 같은 극장국가의 정치적 제의를 포기할 수 없다. 동시에 인민들의 욕망을 인정하고, 근대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희구 역시 무시할 수 없는 이중성인 상황에 처해 있다. 〈빛나는 조국〉은 새로운 북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변용의 과정을 반영한다.

주제어: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빛나는 조국, 인민, 국가, 사회주의문명국, 정상국가, 극장국가

* 연세대학교 통일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서론

김정일 정권에서 북한의 문화적 자랑으로 내세우며 2002년 시작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하 대집단체조)' <아리랑>[1]은 김정은 정권 초기인 2012년과 2013년까지 진행되었다. 본 필자는 새로운 지도자가 대집단체조를 지속한 것은 김정일의 갑작스러운 서거에 따른 체제결속과 세습 권력의 안정적인 이양 때문이었을 것으로 추정한다. 한편, <아리랑>은 2013년 공연 이후 중단된다. 이는 김정은 정권의 권력세습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면서 김정일 시대의 통치이념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아리랑>을 새로운 지도자가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필자는 파악했다. 그러나 북한은 2018년에 새로운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2019년에는 <인민의 나라>를 새롭게 발표했다. 사회주의문명국, 정상국가를 지향한다는 김정은 정권에서 '극장국가'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인 대집단체조를 왜 부활시켰을까? 이러한 의문에서 본 연구는 시작되었다.

북한의 문화예술은 체제 유지와 강화를 위한 선전·선동의 도구 또는 정치사회화의 수단이다.[2] 특히 대집단체조는 북한의 정치·사회·문화 등을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매체이다. 북한의 대집단체조는 1946년

---

1) 본 논문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은 '대집단체조'로 칭한다. 대집단체조 아리랑은 〈아리랑〉으로 표기한다. 이는 〈아리랑〉이 공연되는 기간 중에 열리는 일련의 문화관광축제인 〈아리랑축전〉과 구분하기 위함이다. 민요 아리랑은 ≪아리랑≫으로 표기한다. 이는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서울: 월인, 2007), 105~106쪽에 제시된 내용을 참고하여 이 글에 맞게 수정하였다.

2) 이우영, "북한 문화예술의 개념 및 역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파주: 한울, 2006), 30~31쪽 참조.

첫선을 보인 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는 공연예술로 북한의 사상, 지향 등을 선전·선동하며 극장국가 체제를 견고히 하는 것에 기여해 왔다. 대집단체조는 국가의 기념일을 기리기 위해, 많은 인원이 참여(동원)하여 만들어지며, 개막공연에 최고의 위정자가 참석하고, 반복적으로 북한의 텔레비전을 통해 방영되는 등 북한 사회 내에서는 대표적인 문화예술 작품 중 하나이다.

본 연구는 김정은 정권에서 다시 등장한 대집단체조에서 나타나는, 이전과 다른 점을 살펴보고 이것이 북한의 사회문화적 변화와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김정일 정권에서 진행된 <아리랑>(2005년)과 김정은 정권에서 만들어진 <빛나는 조국>(2018년)을 비교분석 한다. 남한의 연구자가 접근이 제한된 사회인 북한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직접 체감하기는 어려우나, 국가가 기획하고 운영하는 북한의 문화예술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북한의 변화를 유추해 볼 수 있다. 본 연구 또한 김정은 정권의 사회문화적인 변화를 대집단체조 작품에 투영된 주제나 내용을 통해 파악해 본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대집단체조는 메시지 전달의 직접성과 명확성을 위해 많은 문구와 이미지를 사용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집단체조의 배경대에 등장하는 문구와 이미지에 주목하고자 한다.

2. 선행연구 검토 및 이론적 배경

<아리랑>이 2013년 공연을 마지막으로 중단된 이후, 2018년에 새롭게 등장한 <빛나는 조국>, 2019년 <인민의 나라>에 대한 분석은

아직 많지 않다. 현재 북한 대집단체조에 관한 대부분의 연구는 <아리랑>에 집중되어 있다. 이는 최근 공연된 작품을 직접 본 연구자가 제한적이며, 조선중앙텔레비전 등에서 상영된 북한 정부의 공식 영상물이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최근의 대집단체조 관련 연구 중 주목할 만한 것은 이미숙의 "북한 대집단체조의 변천 연구-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이다.[3] 이 연구는 <아리랑>과 <빛나는 조국>을 비교하며 전자가 대내 선전용이라면, 후자가 대외 선전용임을 밝히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대집단체조의 내용과 기능을 이분법적으로 파악한 한계를 지닌다. 2002년부터 등장한 <아리랑>의 경우, 외국 관광객을 모으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했다.[4] 2005년의 <아리랑> 공연에는 남한 관객도 7,300여 명 관람한 것으로 되어 있어 대내 선전에만 집중한 공연이라고 보기 어렵다. <빛나는 조국>도 건국 70주년을 기념하는 공연으로, 인민들에게 건국의 자부심을 설파하는 대내 선전의 내용이 대부분이다. 두 공연 모두 인민에 대한 사상교양과 대내 선전 기능을 기저에 내포하고 있다.

이지순은 논문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5]에서 북한이 2018년부터 '우리 국가제일주의'를 표방하며 국가상징 등을 강조하는 모습을 보였고, 이것이 <빛나는 조국>에도 반영되었다고 밝힌다. 이는 국가가 주도하는 국가정체성과 정상국가를 추

3) 이미숙, "북한 대집단체조의 변천 연구: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통권 27호(2019), 93~118쪽.

4)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북한은 인터넷 사이트를 개설하고 〈아리랑〉 관람을 포함한 다양한 관광코스를 제시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다.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105~122쪽 참고.

5)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No.4(서울: 통일연구원, 2019).

구한 결과이다. 그러나 이지순은 국가정체성이나 정상국가 추구의 바탕에 깔린 인민들의 각성이나 욕망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고 있다.

권헌익과 정병호는 북한의 카리스마 권력 세습이 극장국가이기에 가능하며, 극장국가의 중요한 의례 중 하나가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임을 밝히며 <아리랑>을 고찰한다.[6] 권헌익, 정병호가 사용한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의 '극장국가(theater state)'의 개념은 북한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틀이다. 기어츠는 『극장국가 느가라』에서 '극장국가'라고 하는 상징적 권력에 기반을 둔 정치체제를 소개하며 관료, 군대, 경찰과 같은 물리적 강제력보다 주기적으로 의례화된 공연을 화려하게 연출하며 왕권의 사회적, 우주적 중심성을 보여주는 것을 정치적 권위의 바탕으로 삼았던 인도네시아 발리섬의 느가라를 극장국가의 대표적 사례로 들었다.[7] 기어츠는 '극장국가'의 의례가 '어떤 특정한 정치적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들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 자체로 목적이었으며, 국가는 오히려 그런 것들을 위해 존재했다'[8]며 '권력이 웅장한 제의를 위해 봉사했지, 웅장한 제의가 권력을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었다'[9]고 밝힌다. 이를 정병호는 '극장국가의 권력이 영토나 물리적 강제력을 확대하는 것보다 주로 사람과 사람의 마음을 잡는 일에 주력했다는 사실을 통해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10]

---

6)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파주: 창비, 2013),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2010).

7) 기어츠의 극장국가 개념은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3쪽에서 참고.

8) 클리퍼드 기어츠(Clifford Geertz), 『극장국가 느가라: 19세기 발리의 정치체제를 통해서 본 권력의 본질』, 김용진 옮김(서울: 눌민, 2017), 30~31쪽에서 인용.

9) 클리퍼드 기어츠, 위의 책, 31쪽에서 인용.

북한은 공산권 국가 중 세계 최초의 권력세습을 3대에 걸쳐 성공적으로 진행하며 막스 베버가 주장한 카리스마 권력의 소멸성[11]을 극복했다. 또한 우방인 동구 사회주의권 몰락, 절대적 카리스마를 지닌 김일성의 죽음, 최소 수십만에서 최대 300만 명가량이 아사한 것으로 알려진 고난의 행군 등 체제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고강도 핵과 미사일 테스트로 인한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의 강력한 제재에도 불구하고, 이란 등과 같은 소요사태가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북한 체제가 내부적으로 자발적인 사회통합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답은 '극장국가 북한'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물론 실제에 있어서는 절대권력의 강력한 통제에 의한 비자발적 사회통합이 보다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으나, 본 글에서는 논외로 한다).

권헌익, 정병호는 『극장국가 북한』에서 김정일의 권력 승계와 관련하여 국가권력의 연극적 연출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분석하고 있다. 극장국가 속성은 비단 김일성, 김정일 체제뿐만 아니라 김정은 체제에까지도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김정은 시대의 대표적인 극장국가 의례 중 하나인 대집단체조에서는 이전과 다른 면이 포착된다. 이 글에서는 '극장국가' 개념을 바탕으로 북한의 대집단체조를 김정일, 김정은 시대의 두 작품을 비교하여 분석한다.

---

10)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29쪽.

11) 막스 베버는 '카리스마 권력은 사회적 위기를 겪는 이례적인 시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결국 서서히 사라지게 된다'고 한다. 막스 베버의 카리스마 권력의 소멸성 등 특징에 대한 서술은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 12쪽에서 축약 인용.

3.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특징과 역사

대집단체조는 집단체조가 확장된 개념이다. 김일성 시기에는 집단체조를 '높은 사상성과 예술성, 세련된 체육적 기교가 배합된 새 형의 종합체육예술, 체조대와 배경대, 경쾌한 음악 등의 예술적 조화로 이루어졌다. 우리 나라 집단체조는 청소년들과 근로자들을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조직성, 규률성, 집단주의 정신으로 교양하는 동시에 그들의 몸을 튼튼하게 단련하는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이다'라고 정의했다.[12] 김정일 시대에는 '집단체조는 체육기교와 사상예술성이 배합된 종합적이며 대중적인 체육형식이다. 집단체조는 체조대와 배경대, 음악 등의 체육예술적 조화로 이루어진다. 집단체조는 청소년학생들과 근로자들을 건장한 체력으로 튼튼히 단련시키고 그들의 조직성, 규률성, 집단주의정신을 키워 주며 전면적 발전된 공산주의적 인간으로 키우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의 하나이다'로 정의했다.[13] 즉, 집단체조는 사상과 예술이 혼합되어 체조와 예술(무용 및 음악)이 결합된 종합체육이며 체육이 주 장르이다. 대중교양 수단으로서 북한의 체제를 선전 및 강화하는데 기여하는 이념성이 강하다.[14]

집단체조는 체조대, 배경대, 음악으로 구성된다. 체조대는 기본적으로는 공연장의 바닥을 뜻하며 공연장의 상공을 포함한다. 가장 기본적인 요소로 율동 성격이 강조되며 공연자들은 체조나 무용 동작 및 대

12)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18쪽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백과전서』, 제4권(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838~839쪽.

13) 박영정, 위의 책, 18쪽에서 재인용. 원출처는 『조선대백과사전』, 제20권(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215~216쪽.

14) 박영정, 위의 책, 16~18쪽 참고.

형변화를 주로 한다. 배경대는 집단체조의 내용을 글(단어 혹은 문장)과 이미지를 통해 직관적으로 표현하며 체조대와 음악이 표현하기 어려운 사상과 주제를 설명하거나 보충한다. 배경대는 주로 카드섹션을 통해 글과 이미지를 보여 주며 최근 들어 환등기를 통한 영상, 레이저로 만든 이미지 등을 활용하기도 한다. 음악은 체조나 무용의 배경음악으로 활용되며 곡의 제목이나 노랫말을 통해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충하고 전체 극 흐름을 이끌거나 장면을 전환하는 역할을 한다.[15] 또한 북한의 음악 대부분이 국가가 지어 보급하는 만큼, 각 음악의 창작 배경과 노랫말은 전 인민들에게 부연설명이 필요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한다.

북한에서 집단체조는 1930년 항일투쟁을 하던 김일성이 지도한 '꽃체조' <조선의 자랑>에서 기원했다고 본다. <조선의 자랑>은 당시 소년탐험대원들의 몸과 마음을 단련하며 김일성이 머물렀던 만주 오가자 일대의 농민들을 혁명화하는 데도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북한은 평가한다. 이후 본격적인 집단체조는 1946년 <소년들의 련합체조>로 시작되었다. 집단체조는 예술성보다 체조에 더 비중을 두고 시작했다. 여기에 메시지 전달력을 높이기 위해 배경대가 1955년 <해방의 노래>부터 추가되었다. 집단체조는 국가의 주요 계기를 위한 1회적 행사로 기획되었다. 주로 '공화국 창건 축하', '김일성 제0회 생일', '2.18 비날론 공장 준공 기념' 등 특정한 목적을 가진 공연으로 진행되었다. 김정일의 개입은 1961년 <로동당시대>부터이다. 특히 1989년 <축전의 노래>부터 이후 대집단체조로 명명된 2000년의 <백전백승조선로동당>까지, 그 이후의 2002년 <아리랑> 공연에도 영향을 주었다. 김정

15) 집단체조의 구성요소는 김성모·탁성일·김철만, 『조선의 집단체조』(평양: 조선평양외국문출판사, 2002), 9~32쪽 참고.

일은 특정일의 국가행사를 위한 계기성, 단발성 공연이 아니라 장기공연으로 정착하는 데 영향을 미쳤다. 또한 김정일의 지시로 '집단체조'에서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으로 장르와 규모가 확장되었다.[16]

박영정에 따르면, 대집단체조의 등장은 90년대 '고난의 행군'을 마무리하고 새롭게 '강성대국' 건설로 나아가고자 하는 북한사회의 전환기적 상황, 고난의 행군 이후 김정일 체제의 본격적인 출발과 관련이 깊다. 북한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을 마친 '승리자'로서의 자긍심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심어 주어 체제 결속을 다지려는 의도가 있다. 이에 따라 규모를 키우고 표현도 화려하게 하며, 내용도 조선노동당과 북한 체제의 우월함을 자랑하는 것으로 채우게 된다. 또한 규모가 커짐에 따라 예술 표현의 중요성이 발생하여 '집단체조 창작단' 외에 '피바다가극단'을 비롯한 전문예술가 집단의 참여가 요구되었고 체조만 중시하던 과거와 달리 새로운 장르가 탄생하게 되었다. 또한 2002년의 <아리랑>은 국가행사로부터 독립되어 기념일의 일부 행사가 아닌 독립된 공연으로 기획되어 장기간 공연하게 되었다. '대집단체조'라는 명칭은 2000년부터 사용되었으나 사실상 2002년의 <아리랑>부터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의 형태가 정형화된 틀로 정착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집단체조는 사전에 명시된 명확한 개념은 없으나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 배합된 종합 장르의 성격이 있다. 예술공연이 체조와 병렬적으로 사용된 것은 예술공연 성격이 강화되었다는 의미이다. 둘째, 출연진과 관람자가 모두 10만 명이 넘는 대형 스타디움의 '대공연' 형식이다.[17]

---

16) 이 단락의 집단체조의 역사 관련 내용은 김성모·탁성일·김철만, 『조선의 집단체조』, 6~7쪽;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21~30쪽 참고.

4. 대집단체조 분석

1) 〈아리랑〉(2005년) 분석

필자는 2005년의 <아리랑>의 분석을 위해 해방 60주년을 맞이하여 8월 15일에 공연된 영상을 사용했다. 영상 첫 부분에 '목란비데오'라는 표시가 나오는데, 북한 정부의 공식 영상물임을 알 수 있다. 1992년 12월 설립된 목란비데오는 국가가 운영하는 회사로, 국가 소유 저작물에 대한 녹음(CD)과 녹화물(DVD)의 제작과 판매를 맡고 있다. 영상 내용 중 공연장면을 배경으로 두고 가수를 겹치게 배치한다든지, 정교한 인물 클로즈업 장면이 있는 것으로 보아 본 영상은 텔레비전 방영물로 촬영·편집된 것으로 보인다. 영상에는 한글과 영어로 만든 '백두문화교육사' 로고가 워터마크로 찍혀 있다.[18]

2005년은 광복 60주년을 맞은 해이다. 2002년부터 새롭게 공연되기 시작한 아리랑축전의 재공연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2005년에도 진행되었다. '조국해방60돐'[19]을 맞아 공연은 8월 15일에 정부 차원의 기념행사로 시작하여 10월 31일까지 '5월1일경기장'에서 진행되었다. 공연은 11주에 걸쳐 총 66회 진행되었으며 220만 명이 관람하였다. 2002년 <아리랑>과 비교해 볼 때, 몇 가지 변화한

17) 대집단체조의 역사와 특징은 박영정, 위의 책, 42~49쪽 참고

18) 본 영상의 출처는 https://www.youtube.com/watch?v=MousZCIQcWI이다. 게시자는 촬영일을 2005.8.15.로 명시하고 있다(게시일: 2018.8.16, 게시자: Paektu Cultural Exchange(백두문화교육사), 검색일: 2020.4.18.). 영상의 분량은 1시간 22분 55초이다.

19) 이 글에서는 북한 자료의 인용이나 북한식 표기를 그대로 살리는 것이 의미 전달의 정확성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북한의 표기법을 따른다.

점은 다음과 같다. 2장의 순서가 조금 바뀌었고, 4장에서 배경대 문구가 '6.15 공동선언'과 함께 '조국통일 3대 공조'가 나오고 이미지로 '신의주-부산' 팻말을 단 철도가 달리는 장면이 연출되었다.[20] 또한 김정일이 2004년에 언급한 선군8경이 2005년의 <아리랑>에 주요 내용으로 반영되어 있다. 선군8경은 백두산 해돋이, 다박솔초소 설경, 철령 진달래, 장자산 불야성, 울림폭포 메아리, 한드레벌 지평선, 대홍단 감자꽃바다, 범안리 선경이다.[21] 2005년 <아리랑>에서 3장 1경의 폭포가 묘향산의 이선남폭포에서 선군8경의 하나인 울림폭포로 바뀐 것은 이 때문이다.

<아리랑>은 민요 ≪아리랑≫을 주제에 맞게 변주하여 공연 전체를 관통하게 하였다. 각 장의 제목에도 아리랑이 포함되어 있으며, 서두는 민요 ≪아리랑≫ 독창으로 시작하며, 4장의 '통일아리랑', 종장의 '강성부국아리랑'까지 아리랑이 계속 불리면서 우리 민족이 아리랑 민족임을 드러낸다.

<아리랑>의 세부 장면들은 다음과 같다.

환영장과 서장에서는 '조국해방60돐 만세!',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수령님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이 강산' 등의 배경대 문구를 통해 김일성에 대한 경의를 표한다.

그리고 당시 최고 지도자인 김정일에 대해 '절세의 애국자'라는 표현으로 기린다. 민요 ≪아리랑≫이 불리면서 1장의 막을 연다.

1장의 제목은 '아리랑민족'이다. 주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서사

---

20) 이 내용은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151~162쪽 참조.

21) 선군8경은 2004년에 지정되었으며 선군8경의 대부분의 장면이 2005년 〈아리랑〉에 반영되어 있다.

<그림 1> <아리랑> 서장 중

체조대에는 무용수들이 도열해 있고 무대와 배경대를 활용하여 공연 제목을 보여 준다. 배경대 위 자막에는 공연에 대한 안내가 나온다.

자료: 본 연구에 활용된 영상을 필자가 캡처하였다(이하 <그림 1-4>에서 동일하므로 생략).

<그림 2> <아리랑> 2장 1경
내 조국의 밝은 달아 중

험준하고 어두운 산길을 마다하지 않고 현지지도 가는 김정일의 업적을 찬양하는 장면.

를 바탕으로 구성된 장으로 ≪눈물 젖은 두만강≫ 같은 가요와 추운 겨울을 나타내는 배경대 이미지를 통해 민족의 고난과 시련의 애통함을 그리고, 그 시련을 끝내는 하나의 별(일성)이 하늘에 뜬다. 배경대 이미지로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 역사를 보여 주기 위해 아버지 김형직에게 물려받은 총을 보여주고, 눈보라 속의 고난의 행군, 그리고 승리로 마무리된다. '우리 총대의 뿌리', '어버이 사랑으로 강군을 키우신 대원수', '장군 대를 이으시어'라는 배경대 문구를 통해 선군시대가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에 잇닿아 있음을 알리고 김정일의 업적에도 정당성을 부여한다.

2장은 '선군아리랑'이다. 1경 '내 조국의 밝은 달아'는 ≪내 조국의 밝은 달아≫ 노래에 맞춰 김정일이 밤낮도, 추위도, '오성산의 백쉰한 굽이(노래 가사 중 일부)' 험난한 길도 가리지 않고 '전사들이 있는 곳이라면 그 어디에나(노래 가사 중 일부)' 현지지도를 다니던 모습을 보여

<그림 3> <아리랑> 2장 2경
활짝 웃어라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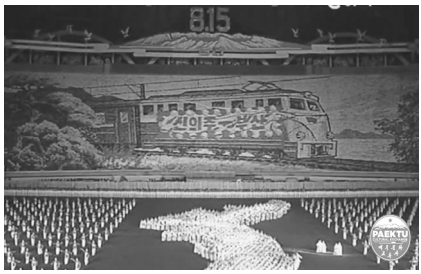
아이들이 영양 공급을 위해 두유(콩우유)를 마시는 이미지를 배경대에 형상화했다.

준다. 김정일이 흐뭇하게 바라보았을 선군8경 중 하나인 자강도의 '장자산 불야성'도 배경대에 이미지로 나타난다. '장자산 불야성'은 잘 정돈된 마을의 현대식 살림집과 개선된 전력사정을 선전하기 위해 전깃불을 밝힌 집들을 형상화했다. 2경 '활짝 웃어라'에서는 바닷가를 배경으로 휴양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하며 물놀이 차림을 한 아이들이 뛰어나와 밝고 경쾌한 재주를 보여 준다. 아이들의 영양을 위한 콩우유차와 즐겁게 콩우유를 마시는 아이들의 모습, 씨름하는 아이들의 모습도 배경대에 이미지로 나타나며, '밝게 웃어라', '활짝 피어라', '아버지 장군님 고맙습니다'의 배경대 문구가 나온다. 3경은 '천지개벽'이다. 농지정리 하는 것으로 보이는 중장비들, 수력발전소, 풍성한 과실과 들판을 배경대 이미지로 보여 준다. 4경은 '흥하는 내나라'이다. 염소, 토끼, 닭, 병아리 등의 탈을 쓴 공연자들이 체조대에 나와서 상모를 돌리며 풍물과 어우러져 흥겹다. 배경음악으로는 ≪흥하는 내 나라≫가 나오며 배경대에는 '두벌농사', '풀과 고기를 바꾸자', '종자혁명' 등의 문구가 나오고 풍성한 음식이 이미지로 등장한다. 5경 '더 높이 더 빨리'에는 교예단과 훌라후프체조단(륜체조단)이 등장한다. 배경대는 '정보산업의 시대', '과학기술 최첨단 수준으로'라는 문구를 보여 주며 자주강국에 대한 의지를 나타낸다. 6경 '인민의 군대'에서는 체조대에 총검술을 하는 군인들이 등장하여 강한 군대를 보여 준다. 배경대에는 '인민들의 행복을 위하여'라

는 글자와 군인들이 건설에 앞장서고 민간인과 함께 웃는 모습을 이미지로 보여 주어 선군시대의 사회 중추인 군대의 역할을 부각한다.

3장은 '행복의 아리랑'이다. 선군8경 중 하나인 '울림폭포'가 1경의 내용이다. 무용단이 체조대에서 선군8경에 선녀들이 내려오는 장면을 연출하며 '선군8경이 살기가 하도 좋아 저 하늘의 선녀도 춤추며 내리네'라는 노랫말이 나온다. 배경대에는 곧이어 현대식 휴양지(콘도) 이미지가 등장하며 '어디가나 인민의 휴양소'라는 문구와 함께 인민들이 살기 좋은 행복한 나라의 이미지를 보여 준다. 2경 '락원의 노래'에서는 교예단의 공중묘기가 암전된 상태에서 부분 조명을 통해 펼쳐진다. 이 경은 교예단이 공중에서 재주를 부리고 지상으로 낙하하는 등 고난이도의 공연을 보여 주면서 관객으로 하여금 공연 자체에 매우 집중하도록 구성되었다. 공연 자체의 성격을 살린 독특한 경으로 별도의 배경대 문구나 다른 이미지는 없다. 3경은 '오직 한마음'으로 현대화된 조국 건설을 위해 오직 한마음으로 나서기를 촉구하는 듯하다. 배경대에는 평양의 야경으로 대동강변의 높고 화려한 건축물과 불꽃놀이의 이미지가 펼쳐진다.

<그림 4> <아리랑> 4장 통일아리랑 중



'신의주-부산'이라고 행선지 팻말을 단 열차를 배경대 이미지로 형상화했다.

4장 '통일아리랑'은 연사의 내레이션으로 시작한다. 연사는 '예로부터 화목하게 살아온 우리 민족이 하루아침에 생떼같이 갈라져 남남이 되어가는 이 땅, 세계 양심이여 대답해 보라, 외세가 가져다준 이 비극으로 하여 이 아리랑민족이 언제까지

이렇게 갈라져 살아야 하는가'라고 말하며 한반도 분단의 원인이 외세임을 직접적으로 밝힌다. 배경대에는 영상으로 이산가족으로 보이는 할머니와 중년의 아들이 서로 찾는 모습이 나온 후, 분단의 상징인 철조망의 모습을 보여 준다. 잠시 후 분위기가 전환되면서 체조대에서는 만남을 상징하는 공연이 펼쳐지고 ≪통일아리랑≫노래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공연자들은 한반도의 형상을 만든다. '통일의 문을 우리민족의 손으로', '우리민족끼리, 2005 조국통일 3대공조' 등 통일의 자주성을 나타내는 문구와 신의주-부산 행선지 팻말을 단 기차가 달리는 이미지가 배경대에 펼쳐지며 ≪우리는 하나≫ 노래로 마무리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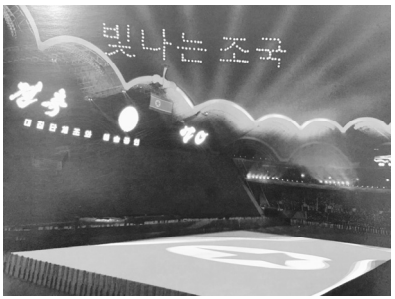
종장은 '강성부흥아리랑'이다. 노래 ≪강성부흥아리랑≫이 나오면서 배경대에는 금수강산의 이미지가 화려하게 펼쳐지고 체조대에는 한반도만 붉은색으로 표시된 지구본이 등장한다. '자주, 평화, 친선', '21세기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영원한 태양 아리랑', '무궁번영하라 김일성조선이여'라는 문구가 배경대에 등장하며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울려 퍼진다. 체조대는 김일성화를 대형을 움직여 만들며 공연의 막이 내린다.

2) 〈빛나는 조국〉(2018년) 분석

필자는 <빛나는 조국> 분석을 위해 2가지 영상을 사용하였다. 두 영상 모두 카메라 각도, 객석 소음 등으로 미루어 봤을 때, 조선중앙TV의 방영분으로 보기 어렵고 외국인 일반 관객이 촬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2가지 영상을 분석했다.[22)]

2018년은 북한 정권수립 70주년이 되는 해로 <빛나는 조국>은 조

<그림 5> <빛나는 조국> 서장 중



인공기가 체조대에 형상화되었다. 하늘에는 드론으로 '빛나는 조국' 글자를 나타냈다.

자료: 외국문출판사 엮음, 『빛나는 조국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에서 발췌(이하 <그림 5-8>에서 동일하므로 출처 생략).

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일(정권수립일)인 9월 9일에 개막하였다.[23] 이 작품은 북한의 70년 역사를 공연으로 만든 것으로 <아리랑>이 2013년까지 공연되고 중단된 후 처음으로 등장한 대집단체조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공연의 전체 흐름은 이전의 <아리랑>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세부 내용에서 변화를 보인다.

서장은 경건한 분위기에서 북한의 국기인 인공기가 체조대에 등장하며 각 사회성원들이 도열하여 국기를 받아 게양한다. 배경음악으로 북한의 국가가 연주된다. 배경대에는 '몸과 마음 바쳐 조선을 받들자'라는 문구가 등장한다.

---

22) 첫 번째 영상은 촬영일은 알 수 없으나 영어자막이 있는 https://www.youtube.com/ watch?v=1F42BzUHsnQ이다(게시일: 2018.9.25, 게시자: brico4kids, 검색일: 2020.4.9). 중간중간 장과 경의 제목을 영어로 번역하여 붙이고 배경대 주요 문구도 번역하여 자막으로 처리한 것이 특징이다. 게시자는 같은 내용을 불어로 번역한 영상물도 게시하였다. 두 번째 영상은 https://www.youtube.com/watch?v=EkynBueBrIM이다(촬영일: 2018.9.22, 게시일: 2018.10.17, 게시자: Adi vlog, 검색일: 2020.4.5). 두 영상 모두 북한정부나 조선중앙텔레비전 등의 공식 영상물이 아니기 때문에 각 장과 경의 제목과 구분이 모호하다. 필자는 영어 자막으로 제시된 것을 번역하거나 영상에 잡힌 문구를 최대한 채집하여 장과 경의 제목에 반영하였다. 또한 배경대의 문구도 온전하게 촬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다. 이는 공식영상물을 입수하여 추후 보완해야 하는 부분이다.

23) 전체 공연 횟수와 기간, 관람자 수 등의 통계자료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는 분석을 위한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다.

환영장에서는 아이들이 골을 넣고 태권도 선수들이 격파하는 모습이 배경대에 펼쳐진다. 곧이어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경의를 표하는 문구로 바뀐다. 배경대와 체조대에 걸친 백두산의 이미지 위로 드론들이 등장하여 '빛나는 조국' 글자를 상공에서 표현한다.

1장 '우리 사회주의 조국'의 1경(세부제목 파악 불가)과 2경 '조선의 새 숨결'에서는 김일성의 등장과 해방 이후 단행했던 개혁조치들(토지개혁, 중요사업 국유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건국 과정을 보여준다. 건국의 기쁨을 담은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가 배경으로 깔리고 밝고 경쾌한 분위기 속에서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만세!',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 '우리 인민공화국' 등의 배경대 문구를 통해 김일성의 등장과 건국의 감격을 드러낸다. 곧이어 3경 '전쟁의 3년'에서는 체조대가 어두워지며 공연자들이 민족의 분단과 전쟁, 그리고 전쟁의 승리를 표현한다. 4경 '주체의 길따라'는 전쟁 이후 천리마 정신으로 국토를 재건하고 주체사상, 김일성주의를 세워가는 것을 보여준다. 5경 '행복한 가정'에서는 새로 건설된 사회주의 조국은 금수강산이자 '우리 모두 화목하게 살아가는 곳'으로 배경대에 문구와 함께 이미지로 형상화된다.

2장은 선군시대를 나타낸다(정확한 장의 제목은 알 수 없다). 1경 '승리의 길'에서는 고난의 행군을 거쳐 '불굴의 선군령도 업적'을 세워 간 김정일을 추모한다. 체조대에서는 풍랑이 이는 바닷속에서 일떠서는 붉은 기를 연출하며 배경대에는 '인민을 위해 바치신 불같은 희생', '인민은 못 잊습니다'라는 글귀 뒤에 김정일 얼굴이 등장한다. 2경 '위대한 수호자'에서는 경쾌한 군악대 행진과 여군들의 칼춤, 남군들의 무술시범이 이어진다. 배경대는 '불굴의 선군령도 업적', '우리군대의 전통 백전백승' 문구를 보여 준다. 3경 '우리를 보라'에는 아이들이

<그림 6> <빛나는 조국> 2장 2경
위대한 수호자 중

여군들이 칼춤을 추는 장면.

등장하여 밝게 잘 자라고 있음을 '세상에 부럼없어라' 노래에 맞춰 보여 준다. '전반적 12년제 의무교육', '우리는 행복해요', '콩우유'와 같은 문구와 함께 최근에 인민 편의를 위해 디자인을 다양화했다는 '책가방' 이미지가 배경대에 형상화된다.[24] 배경대에 '아버지 원수님 고맙습니다'라는 문구가 나오고 아이들도 같은 말을 외치며 마무리된다. 4경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다'에서는 배경대 이미지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인민을 그리며 '인민중시, 인민존중, 인민사랑'의 배경대 문구가 등장한다. 사회주의 교육제도, 보건제도 등을 보여 주는 장이다. 이후 5경 '인민들의 웃음'에서는 인민들이 마식령 스키장에서 스키를 타고 문수 물놀이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을 공연으로 표현했다. 배경대에는 '최고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라는 글자가 등장하며 자부심을 드러낸다.

3장은 '펼쳐진 새 시대'를 제목으로 하며 전환의 시대를 보여 준다. 1경 '과학의 힘'에서는 핵을 비롯하여 과학으로 담보할 미래가 ≪달려가자 미래로≫ 음악 속에 펼쳐진다. 배경대에는 '주체철', '제재 압살 자력갱생'의 문구도 등장한다. 2경 '위대한 진전을 향해'에서는 레이저로 과학기술, 여명거리를 체조대 바닥에 형상화하며 새로운 조선을

24) 이는 책가방 제작 및 도안에 관한 김정은의 현지지도 내용을 반영한 것이다. 안윤석, "北 김정은, 12년의무교육제 앞두고 학생 가방공장 시찰," 『노컷뉴스』, 2016년 1월 28일.

<그림 7> <빛나는 조국> 3장 5경
우리가락 멋이로세 중

배경대에 대동강의 유람선, 여명거리, 류경호텔 등으로 화려한 평양을 이미지로 나타냈다.

보여 준다. 배경대에는 '여명거리 건설신화', '새로운 조선속도'의 문구가 등장한다. 3경 '황금시대 건설'에서는 배경대와 체조대를 통해 과자, 음료수, 과일, 인삼 등 풍요의 이미지와 풍년이 든 들판을 보여 준다. 4경 '황금산 황금벌 황금해'에서는 레이저로 먼저 풍요로운 산과 들, 바다, 배, 갈매기 등을 그린 후, ≪바다 만풍가≫가 울려 퍼진다. 체조대와 배경대에서 만선과 풍어의 이미지를 그리며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라는 문구를 통해 이를 김정은의 업적으로 선전한다. 수산업은 김정일의 유훈이었으며 김정은도 집권 후 여러 차례 현지지도와 16년 5월의 제7차 당대회를 통해 수산업을 강조해 온 것이 내용에 반영된 것이다.[25] 5경 '우리 가락 멋이로세'는 을밀대에서 가야금을 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노인, 청년, 그리고 어린이로 구성된 3세대의 연주자에 이어 1,200여 명의 가야금 연주자들이 조명 속에 드러난다. 배경대에는 여명거리와 평양시내의 화려한 불꽃놀이 이미지가 보인다. 체조대에는 장구춤과 풍물놀이가 가미된다. 6경은 격파, 대련 등 태권도원들의 시범이 펼쳐진다. 7경은 '강성대국의 파란하늘'이라는 제목으로 3장에서 보여 준 풍요와 강성대국의 모습이 김정은의 업

25) 김정은 정권의 수산업 강조와 관련하여 KBS, "만선의 꿈 vs 죽음의 항해… 北 수산업의 두 얼굴," 『남북의 창』, 2016년 12월 24일.

<그림 8> <빛나는 조국> 4장 2경
평화, 번영의 시대 중

체조대에는 무용수들이 한반도를 형상화했다. 배경대에는 '통일의 거목으로 푸르싱싱하라'라는 문구가 보이며 배경 이미지로 4.27 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제막한 기념비, 같이 심은 소나무 등이 보인다.

적임을 강조한다.

4장은 '통일된 삼천리'이다. 1경에서는 고향을 그리는 노래와 통일을 바라는 노래가 나오면서 '우리 민족끼리 통일의 새 력사를 써가자'는 문구가 배경대에 등장한다. 2경은 4.27 남북정상회담(이하 4.27 회담)의 표제어였던 '평화, 번영의 시대'를 제목으로 한다. ≪백두와 한나는 내 조국≫[26]이 울려퍼지며 가수들이 등장한다. 배경대에는 '수령님과 장군님의 필생의 념원' 문구가 나오고 곧이어 4.27 회담 때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이 판문점 분계선에서 만나 악수와 포옹을 나누고 합의서에 서명하며, 평화비를 제막하는 등의 모습이 영상으로 보인다. '4.27 선언 새로운 력사는 이제부터'라는 문구가 등장한 후, ≪통일 아리랑≫이 연주된다. '평화의 시대, 력사의 출발', '통일의 거목으로 푸르싱싱하라' 등의 문구가 배경대에 더 등장하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노래가 나온다. 체조대의 공연자들은 독도까지 표시한 하늘색의 한반도 모양 대형을 만들고 퇴장한다.

26) 2018년 2월, 북한의 삼지연관현악단이 서울에서 공연할 때 원곡의 '제주도 한나산도' 대신에 '한나산도 독도도'로 개사하였는데 2018년 하반기 〈빛나는 조국〉 공연에서도 동일하게 연주되었다.

5장은 '국제친선장'이다. 국제 친선을 주제로 하며 여러 나라 의상을 입은 무용수들이 등장한다. 배경대의 문구도 영어와 중국어가 병기된다. 배경대에 '세계의 자주화를 위하여'가 한글로 나오고 이후에 영어와 중국어로 다시 한번 나오는 방식이다.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외교관계에서 탈피하려는 듯 배경대에는 '외교관계 다각화'라는 문구와 아랍인, 아프리카인, 동양인, 서양백인 등 다양한 인종이 등장한다. 서구의 ≪축배의 노래≫, ≪봄의 소리 왈츠≫가 흥겹게 연주된 후, 러시아 음악에 맞춰 러시아 춤이 등장하고 라틴 음악, 아프리카 음악이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음악과 중국을 상징하는 용, 사자탈, 붉은 중국민속의상의 공연자들이 등장한다. 배경대의 문구는 '자주, 평화, 친선'이다.

종장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는 배경대 이미지로 여명거리, 고층빌딩, 황금 들판, 현대식 주택 등 부강한 모습을 보여 주며 시작한다. '번영하라 사회주의 조국이여', '원수님 계시어 강대한 우리 조국' 등의 배경대 문구 이후에 배경 음악으로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김정은 장군께≫라는 노래가 나온다. 배경대에는 '존엄높은 인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의 문구가 등장하고 ≪빛나는 조국≫ 노래가 연주된다. 공연은 노래의 한 구절인 '조선아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라는 글자를 보여주며 끝난다.

3) 〈아리랑〉과 〈빛나는 조국〉 비교 분석

<아리랑>과 <빛나는 조국>의 기본 공연 내용 구성은 비슷하다. 항일과 건국의 김일성 시대가 1장이며, 고난의 행군 등 경제 위기를

<표 1> <아리랑> 및 <빛나는 조국> 구성 비교

〈아리랑〉 김정일 시대, 2005년 공연(광복 60주년)	〈빛나는 조국〉 김정은 시대, 2018년 공연(건국 70주년)
환영장 서장 아리랑	환영장 서장
1장 아리랑민족 1경 두만강을 넘어 2경 조선의 별 3경 내 조국 4경 우리의 총대	1장 우리 사회주의 조국 1경 (파악불가) 2경 맥박치는 새 조선 3경 전쟁의 3년 4경 주체의 길 따라 5경 행복한 가정
2장 선군아리랑 1경 내 조국의 밝은 달아 2경 활짝 웃어라 3경 천지개벽 4경 흥하는 내 나라 5경 더 높이 더 빨리 6경 인민의 군대	2장 (파악불가) 1경 승리의 길 2경 위대한 수호자 3경 우리를 보라 4경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행복 5경 인민들의 웃음
3장 행복의 아리랑 1경 울림폭포 2경 락원의 노래 3경 오직 한마음	3장 펼쳐진 새 시대 1경 과학의 힘 2경 위대한 진전을 향해 3경 건설의 황금시대 4경 황금산 황금별 황금해 5경 우리 가락 멋이로세 6경 (파악불가) 7경 강성대국의 푸른하늘
4장 통일 아리랑	4장 통일된 삼천리 1경 (파악불가) 2경 평화, 번영의 시대
-	5장 국제친선장
종장 강성부흥아리랑	종장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
서장, 본문4장 13경, 종장	서장, 본문5장 17경, 종장

자료: 필자 작성. <아리랑> 부분은 권갑하,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변화 양상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제15호(2015);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일부 참고

<표 2> <아리랑> 및 <빛나는 조국> 환영장, 서장 비교

〈아리랑〉		〈빛나는 조국〉	
환영장	문구) 조국해방60돐 만세! 문구) 조국해방의 은인이신 어버이 수령님께 최대의 경의를 드립니다 문구) 수령님 그리움으로 사무치는 이 강산 문구) 장군님은 수령님과 함께 오셨습니다 문구) 절세의 애국자 김정일 장군 만세!	환영장	체조대) 국기 입장: 여러 사회성원들이 도열하여 국기를 맞이함. 국가 연주. 문구) 몸과 마음 바쳐 조선을 받들자 문구)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에게 경의 문구) 창건 70돐 만세 자막)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슬기론 인민의 이 영광(국가 '아침은 빛나라' 가사 중)
서장	문구) 아리랑 고개에서 이별하는 장면 체조대) 천지 모습, 천지에 해가 떠오르는 모습, 태양으로 붉게 물든 하늘	서장	체조대) 백두산 모습 체조대) 드론쇼 시작, 빛나는 조국 글자 형상 체조대) 바닥면에 인공기 등 영상

주: 본 표에서는 배경대 문구와 이미지, 체조대의 주요상황(공연단의 중요 공연 내용과 무대소품 등)과 배경음악, 배경대 위 자막의 중요 내용을 요약한다. 배경대 위 자막은 장과 경의 제목, 공연 내용 설명, 공연자에 대해 소개, 배경음악의 제목과 가사를 주로 보여 준다. 자막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혼재되어 있다. 이 정리방식은 <표 3>~<표 8>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자료: 필자 작성.

선군정신을 앞세우며 지내온 김정일 시대(1990년대)가 2장, 그리고 그 이후의 풍성하고 안정된 현재(2000년 이후)가 등장하는 3장이 시간 순서에 따라 전개된다. 그리고 조국의 통일에 대한 염원이 나오는 4장, 종장이 기본 골격이다. 2012년의 <아리랑>부터는 5장에 '친선아리랑'이 등장하며, <빛나는 조국>에도 '국제친선장'이 5장으로 등장한다. 이는 없던 내용이 아니라 기존 2002년 <아리랑>의 종장에 있던 국제화합의 내용이 시대적 중요성을 얻음에 따라 독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각 장의 하부구조인 경의 숫자는 공연에 따라 조금씩 변화가 있다.

<아리랑>은 유훈통치를 지속하고 있는 당시의 북 상황을 보여

<표 3> <아리랑> 및 <빛나는 조국> 1장 1경 비교

〈아리랑〉		〈빛나는 조국〉	
1장 아리랑민족		1장 우리 사회주의 조국	
1경 두만강을 넘어	문구) 두만강 추운 겨울 모습 체조대) '눈물 젖은 두만강' 노래 깔리고 문구) 천둥번개로 쇠사슬 끊기는 이미지 체조대) 슬픔 속에 떠나는 사람들, 겨울에 고향을 떠남, 가족과 헤어짐	1경 (상세 제목 파악 불가)	문구) 산천도 노래하라 이날의 감격을('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가사) 체조대) 배경연주: '인민공화국 선포의 노래' 문구)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만세 문구) 우리 인민공화국 자막) 백두광명성이 솟았다. 문구) 영명한 지도자 김일성 만세 문구) 전설적 영웅 김일성 장군 이미지) 동맹기 같이 등장(중국, 소련) 문구) 민족의 태양 체조대) 무용수들이 모여 인공기를 만들고 휘날리는 모습 연출 문구) 우리 인민공화국

자료: 필자 작성.

주며 서장을 연다. 절대적인 존재인 수령님과 장군님을 강조하며 위대한 개인에게 조국의 성과와 운영을 기대고 있다. <빛나는 조국>의 서장에서는 국기가 등장하고 인민들은 이를 도열해 맞이하며 게양하며 국가가 울려 퍼진다. 장중한 분위기 속에 위대한 개인이 아닌 나라 그 자체에 대해 충성하는 장면을 연출하며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만들어 내고 있다.

<아리랑>의 1장 '아리랑민족'은 항일무장투쟁의 역사로 이루어져 있다. 노래 ≪눈물 젖은 두만강≫으로 시작된 본 장은 식민수탈의 어둡고 슬픈 과거에서 인민들을 구원한 김일성의 업적을 조명한다. <빛

나는 조국>의 1장 '우리 사회주의 조국'에는 항일무장투쟁의 역사가 생략되어 등장하지 않는다. 밝고 경쾌한 분위기에서 인민공화국의 건립과 이를 이끈 영명한 지도자를 찬양한다. 그리고 김일성의 업적인 토지개혁 등을 보여 준다. 6.25 전쟁도 전쟁의 참상 대신 천리마 운동을 통해 전쟁의 참화를 극복하고 재건해 온 모습을 강조한다. 김일성의 지도에 따라 건설한 새 나라의 밝은 모습, 화목한 모습, 시련을 극복하며 단련해 온 강인한 모습이 긍정적으로 그려진다.

<아리랑>의 2장 '선군아리랑'은 선군정치로 극복한 고난의 행군 등 시련보다 김정일의 업적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이는 선군정치에 대한 정당성을 부여한 것으로 읽힌다. 김정일의 낮밤과 험지를 가리지 않은 현지지도와 김정일로 인해 풍요로워진 모습을 아이들을 통해 구현한다. 식량과 전력 사정이 안 좋았던 당시의 상황을 반영하듯, 태성호 관계수로 공사(2001~2002년 추정), 수력발전소 건설 등이 등장한다. '풀과 고기를 바꾸자'는 배경대 문구처럼 축산업을 장려하고 종자혁명을 통해 증산을 추구한 것도 2장에 반영되어 있다. 또한 1998년 이후 경제 재건을 위해 전개된 '제2의 천리마운동'의 주요 노력동원 슬로건인 '라남의 숨결', '성강의 봉화따라' 등도 배경대 문구로 등장하며 고난의 행군의 후유증을 극복하며 자주강국을 추구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2장 6경 '인민의 군대'에 등장한 군인들의 총검술은 강인한 군대를 상징한다. 강인한 군대가 수령을 지키며 인민의 행복을 지켜왔다는 배경대 문구와 함께 선군시대에 정당성을 부여하며 2장이 끝난다.

<빛나는 조국>의 2장 1경은 김정일에 대한 추모와 흠모로 시작하여 2경에서 경쾌한 군악대 행진과 남성 군인들의 격파시범을 보여 주며 강한 군대와 선군의 업적을 자랑한다. 3경에서는 <아리랑>의 2장 2경

과 같이 아이들이 등장하나 교육제도 개선이나 복지 확충(책가방 디자인 다양화 등)의 메시지를 추가로 전달한다. 4경에서는 사회주의의 교육제도와 복지제도를 강조하며, 인민을 중시하고 존중하고 사랑한다고 배경대 문구를 통해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직접적으로 언급한다. 이는 이전의 <아리랑>에서는 나오지 않던 것으로 인민이 수령님이나 장군님을 섬겨야 했던 대상에서 존중받아야 할 대상임을 밝혀 김정은 시대의 인민관 변화를 보여 준다. 5경에서 인민들이 스키장, 수영장에서 즐기는 모습은 다소 이채롭기까지 하다. 북한에서는 여태껏 여가를 즐기는 사람들이 아이들로 한정되어 왔다. 인민들이 여가를 즐기는 모습을 보여 주면서 국가가 '항상 근로하는, 국가에 충실한, 국가가 늘 우선인 인민'에서 '개인적인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대상'으로 달리 보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사회주의문명국의 높은 문화수준을 누릴 수혜자가 인민임을 밝히며, 김정은 시대의 인민은 국가에 숨죽인 개인이 아니라 드러내 놓고 개인의 욕망을 밝힐 수 있는 존재임을 암시한다.

<아리랑>의 1, 2장이 위대한 지도자들의 업적에 관련한 것이었다면 3장은 미래, 지향에 관한 내용이다. <빛나는 조국>의 1, 2장은 <아리랑>과 마찬가지로 과거 위대한 지도자의 업적에 관한 것이며 3장은 김정은 시대의 현재와 지향에 관한 것이다. <아리랑>의 과학에 대한 강조는 2장 '선군아리랑'에 짧게 등장한다. 그러나 <빛나는 조국>에서는 핵 보유와 과학적인 이미지들을 다소 노골적으로 보여 준다. <빛나는 조국>의 3장 1, 2경을 통해 과학의 성과, 핵 개발, 만리마정신 등을 설파한다. 3, 4경에서는 풍성한 먹거리, 김정은이 강조한 과수업과 수산업의 성과를 보여 준다. <빛나는 조국>의 3장의 1~5경은 사회주의 건설이 얼마나 인민생활에 좋은지를 계속 강조하고 있다. 6경에서는 <아리랑> 2장의 6경에 상응하듯 태권도원들이 격파와

<표 4> <아리랑> 및 <빛나는 조국> 3장 비교

〈아리랑〉		〈빛나는 조국〉	
3장 행복의 아리랑		3장 펼쳐진 새 시대	
1경 울림 폭포	체조대) 선군8경 중 하나인 울림폭포 무대장치 체조대) 피리부는 사람 등장하고 선녀들 하늘에서 내려옴 이미지) 울림폭포 모습 체조대) 피리불던 사람 선녀보고 놀람 자막) 아침해가 솟아올라 금빛을 뿌리는 금수강산…(중략) 선군8경, 살기가 하도 좋아, 저 하늘의 선녀들도 춤추며 내리네 문구) 어디가나 인민의 휴양소 이미지) 콘도 등 휴양지	1경 과학의 힘	체조대) 핵이미지, 과학적인 이미지들 체조대) ≪달려가자 미래로≫ 배경 음악 체조대) 체조대 바닥에 과학 이미지, 핵 기호 나옴 문구)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하자 문구) 제제 압살 자력갱생 문구) 주체철
2경 락원의 노래	체조대) 교예단 하늘에서 묘기(남녀1쌍), 묘기 부리다가 밑의 그물망으로 낙하 체조대) 배경음악이 신나는 아리랑으로 바뀜 체조대) 기기묘묘한 꽃 형상을 한 자동차들 등장하고 묘기로 이어짐	2경 위대한 진전을 향해	체조대) 레이저 이미지로 암전된 바닥에서 과학, 건물 등 형상화 자막) 우리들은 만리마기수 문구)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오늘과 래일이 다른 비약의 시대 체조대) 남성 체조, 덤블링 등 이미지) 여명거리 등 고층빌딩 문구) 여명거리 건설신화 문구) 새로운 조선속도 자막) 폭풍치며 전진 번개치며 전진 이 진군에 사회주의 승리가 있다. 백년 세월 당겨 미래향해 달려
3경 오직 한마음	문구) 일심 단결 이미지) 망치, 펜, 곡괭이 자막) 오직 한마음, 오늘의 이 행복은 그 누가 주었나, 노동당이 주었네 수령님이 주셨네 김일성 원수님이 이끄시는 길을 따라(중략) 오직 한마음 이미지) 높은 건물, 주체탑, 대동강변 불꽃놀이 장면 체조대) 김일성화 형상화 한 후 흩어짐 자막) 김일성의 원수님의 가르침을 따라갈 때 언제나(중략) 오직 한마음	3경 황금 시대 건설	이미지) 과자, 음료수 등 공산품, 먹거리(과일, 인삼, 버섯, 감자 등) 풍요이미지 체조대) 무용수들 과일가지와 항아리 들고 춤. 문구) 모든 산을 황금산, 보물산으로 이미지) 풍년이 든 들판(벼이삭 등) 체조대) ≪흥하는 내 나라≫노래 제창 체조대) 풍물놀이 등장, 북 춤, 상모 놀이

		4경 황금산 황금별 황금해	체조대) 레이저로 바다, 배, 갈매기 형상화 체조대) 바다 느낌 나는 파란색 배경, 조개, 바다생물(거북, 물고기 등) 이미지) 바닷속, 돌고래 문구) 사회주의 바다향기 이미지) 만선, 풍어 자막) 포구엔 만선의 뱃고동소리 선창엔 물고기 가득 웃음도 절로 나네 어그야 디야 이 기쁨이 뉘 덕이냐 원수님의 은덕일세 사회주의대가정에 바다향기 더해가네 황금해 새 역사 헤쳐가세 문구) 수령님과 장군님께서 보시면 얼마나 기뻐하시랴
		5경 우리 가락 멋이로 세 - 7경 강성 대국의 푸른 하늘	체조대) 을밀대에서 가야금 타는 노인, 장년, 어린 소년: 가야금 3중주 자막) 이야 좋다 금수산 제일봉에 아침 해발이 붉게 피니 꽃봉오리 완연하여 모란봉이라 하였는가 체조대) 하단에 가야금 병창 1,200여 명 자막) 아리랑 아리랑 아라리오 자막) 얼씨구나 좋다 사회주의 건설이 좋을씨구 (중략) 좋다! 우리 평양은 좋아 체조대) 태권도 시범: 격파, 대련 등 자막) 내 나라는 사회주의 불패의 강국 문구) 만방에 떨치자

자료: 필자 작성.

대련 장면을 보여 준다. 강국의 이미지를 강조하나 <아리랑>에 등장한 총검술이 등장하지 않아 호전적인 면모는 줄어들었다. <빛나는 나라>의 3장은 군사적으로 강한 나라는 물론, 사회주의 문명강국을 강조하고 있다. 김정은 정권은 핵 보유를 노골적으로 과시하지만 핵 역시 사회주의문명국의 한 요소로 다른 성과에 비해 크게 부각되지는 않는다.

4장에서는 통일에 관한 내용이 나온다. <아리랑>의 분단 상황은 성우의 내레이션까지 더해져 지극히 애통하게 그려지고 통일이 김일

성의 유훈임을 강조한다. <빛나는 조국>은 분단을 고향을 가지 못하는 슬픔으로 나타내나 <아리랑>만큼 절절하지는 않다. <빛나는 조국> 4장의 백미는 문재인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만나 4.27 선언을 한 것을 영상으로 보여 준 것이다. <아리랑>과 <빛나는 조국> 모두 각 시기에 맞는 남북선언을 제시하며 시의성을 갖추고 있다.

<그림 9> <빛나는 조국> 종장 중

<빛나는 조국>의 5장 '국제친선장'은 2005년의 <아리랑>에는 부각되지 않던 내용이다. 서구의 음악이 연주되는 것도 이채롭다. 정상국가로서 대외관계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김정은 정권의 의지가 엿보인다.

<아리랑>과 <빛나는 조국>은 종장에서 메시지의 차이가 크다. <아리랑>은 김일성에 대한 그리움과 찬탄으로 끝맺는다. 조국의 번영을 기원하는 문구도 '무궁번영하라 김일성조선이여' 정도에 그치고 있다. '강성부흥아리랑'으로 명명된 장이지만 특별히 강성부흥에 대한 내용도 나오지 않는다. <빛나는 조국> 종장은 드론이 하늘에 수놓은 '조선아 만만세'라는 글자로 시작하며 건국 70주년인 '국가'를 기념한다. 그리고 사회주의 조국의 번영을 기원한다. 김정은에 대한 헌사가 노래로 나오는 가운데, '존엄높은 인민',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등 이전과 다른 문구가 나온다. 국가의 번영을 기원하며 '인민'과 '당'을 언급한 것은 둘의 위상이 이전과 다름을 암시한다. 선군시대에 뒷전이었던 '당'을 앞세우기 위해 당대

<표 5> <아리랑> 및 <빛나는 조국> 종장 비교

〈아리랑〉		〈빛나는 조국〉	
종장 강성 부흥 아리랑	이미지) 금수강산 풍경 이미지) 지구본 등장, 한반도만 붉은표시 문구) 삼천리금수강산아리랑 문구) 자주 평화 친선 문구) 21세기의 태양은 누리를 밝힌다 체조대) 폭죽 터지고 문구) 영원한 태양 아리랑 문구) 무궁번영하라 김일성조선이여 자막) 만주벌 눈보라… 그 이름도 그리운 김일성 장군 아 그 이름도 빛나는 김일성 장군 (≪김일성 장군의 노래≫로 추정) 체조대) 김일성화 형상	종장 우리에게는 위대한 당이 있다	체조대) 레이져 쇼, 드론 글자: 조선아 만만세 체조대) 무용수들 인공기 등 들고 나옴 이미지) 여명거리 고층빌딩, 김일성화, 김정일화, 황금 벌판, 공장, 주체사상탑, 개량 주택 문구) 번영하여라 사회주의 조국이여 문구) 원수님 계시어 강대한 우리 조국 이미지) 태양 배경 등장 자막) 영광을 드립니다 우리 장군께, (중략) 김정은 장군께 백두의 억센 힘 세계에 명진 절세의 영웅을 우러릅니다. 문구) 존엄높은 인민 문구) 영광스러운 우리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만세! 문구) 당을 따라 하늘땅 끝까지 문구) 조선아 조선아 영원무궁 만만세! 체조대) 축포 터지는 가운데 참여자들 환호

자료: 필자 작성.

회를 개최하는 등 여러 노력을 전개한 김정은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 인민에 대한 언급도 김정은 시대의 지향을 담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인민은 '수령의 자식'이기보다는 정상적인 '공화국의 인민'이다. 인민 개개인의 욕망을 드러내며 개체로 인정한다. 배급이 무너지고 장마당과 같은 시장경제를 맛본 인민들은 더 이상 '수령의 자식'으로만 살 수 없다는 것을, 사회주의문명국을 건설하여 그들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야 함을 김정은은 알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의 '국가'는 더이상 '김일성조선'처럼 위대하고 특별한 개인의 업적이거나 점유물이 아니다. 서장에서 국기가 게양되고 국가

가 불리는 것도 정상국가의 이미지를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정상국가에서는 개인에 대한 송가가 아니라 '국가'를 부르고 '국기'를 걸며 국가 그 자체에 대한 충성을 다짐한다. 김정은 정권의 대집단체조에서는 정상적인 국가의 의례를 진행하며 자신의 정체성, 혹은 지향하는 정체성을 드러낸 것이다.

5. 김정은 정권 대집단체조의 의미

고난의 행군으로 통칭되는 1990년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김정일은 선군을 내세운 통치를 하였다. 모든 일에 군이 먼저였고 군이 중심이 되어 체제 결속을 다졌다. 북한은 선군정치가 '최악의 역경 속에서 사회주의 보루를 지키고 강성부흥의 새 시대를 열어 놓은 기적을 창조'하며 '사회주의정치에 나서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불패의 정치'[27]라며 선군정치를 옹호한다. 사회주의를 지키고 체제를 유지하고자 했던 선군정치의 이면에서 배급이 끊긴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장사를 시작하며 자생적 자본주의로 삶을 영위해 갔다. 중국과의 밀무역 등이 성행하고 탈북한 가족과 이웃으로부터 전해지는 소식에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와 문화에 눈뜨게 되지만 당국의 검열과 단속 속에서 아무런 동요 없는 척하며 살아간다.[28]

위기가 어느 정도 안정된 후 들어선 김정은 정권은 사회주의문명국

27) 이 단락의 선군정치 관련 두 개의 인용은 이하의 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로동신문 논설,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28) 북한의 시장경제형성에 대한 부분은 헤이즐 스미스(Hazel Smith), 『장마당과 선군정치』, 김재오 옮김(파주: 창비, 2017), 237~260쪽 참고.

을 내세우며 정상국가가 되기를 추구해 왔다. 김정일 사후, 북한은 2012년 『로동신문』 등의 신년 공동사설을 통해, '사회주의문명국'을 처음 언급한다. 2013년 『로동신문』에 게재된 신년사에서는 사회주의 문명국을 '우리가 건설하는 사회주의 강성국가는 전체 인민이 높은 문화지식과 건강한 체력, 고상한 도덕품성을 지니고 가장 문명한 조건과 환경에서 사회주의 문화생활을 마음껏 누리며 온 사회에 아름답고 건전한 생활기풍이 차 넘치는 사회주의문명국'과 같이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2013년 1월, 김정은은 사회주의문명국에서 언급된 인민을 한 층 더 강조한다. '인민을 하늘처럼 숭배하고 인민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복무'할 것을 다짐하며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주장하고[29] 이는 2015년 10월 노동당 창건 70주년 기념식에서 더욱 구체화된다.[30] 이 연설에서 김정은은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인민, 군대, 청년을 중시한다며 기존의 선군담론에서 군대를 우선시하던 전략을 수정한다. 2016년 5월의 7차 로동당대회에서도 인민대중제일주의는 지속적으로 언급된다.[31] 김정은 체제의 확립, 인민대중의 결속과 자발적 지지를 위해 선군보다는 선민(인민, 청년)으로 당의 통치 사상이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이나 인민대중제일주의는 김정은 시대가 시장경제와 외부세계의 경험을 통해 성장한 인민들을 충족시키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선택한 '변용'의 키워드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이란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해서 교육, 보건, 체육분야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높이

29)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30) 김정은은 조선로동당창건 70돐경축 열병식 및 평양시군중시위의 연설에서 '모두 위대한 인민을 위하여 멸사복무해 나갈 것을 전체 당원 동지들에게 호소'하였다.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1278호(2015.10.10.~10.16.).

31) 통일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통일부 정책보고서), 2016.5.9.

자는 뜻으로 처음 제안했지만, 점차로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향상시키고 근대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진시킨 나라를 만들자는 의미로 확장되었다.[32] 사회주의문명국을 사실상 김정은 시대 북한의 발전목표 구호로 활용하면서 기존의 민족은 국민 또는 국가로, 일제와 미제로부터의 '해방'보다 과학적이고 현대적 '발전'을 보다 강조하게 된다. 한편 '사회주의'를 여전히 고수함으로써 남한과 같은 자본주의로 상징되는 비도덕적, 물질 만능주의적 발전과의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다.[33]

이와 같이 변화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대집단체조의 재등장은 무슨 의미일까? 막스 베버가 주장한 카리스마 권력의 소멸성을 거스르면서 3대 세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북한의 예술은 정치와 밀접하게 연결되었고 국가 정치와 공공예술 간의 구분은 사라지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북한은 인위적인 예술정치를 통해 카리스마 권력의 자연도태에 저항하는 현대적 극장국가를 탄생시켰다.[34] 이를 대표하는 것이 1970년대 이후 본격적, 체계적으로 만들어진 혁명가극과 예술영화들, 그리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이다. 북한의 대집단체조는 강력한 정치적 열망으로 빚어낸 예술이다. 권헌익과 정병호에 따르면 대표적인 대집단체조인 아리랑축전에 참여한 인민들은 국가의 언어(langue)를 말(parole)하면서 시민과 국가가 언어행위를 통해 하나가 된다. 대규모 스펙터클 공연에 참여하는 대중은 국가라는 가상 이미지를 현실로 만들고 동시에 국가의 이미지를 통해 자신들의 집단의식에 영향을 받는다.[35]

---

32)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파주: 창비, 2020), 49쪽.

33) 동시에 북한 사회주의와의 연속성, 현재의 저발전이나, 북한식 특징(평양 우선 발전, 기간산업 지체에도 불구하고 인민생활 관련 부분 우선 개발 등)을 면피할 수 있는 부수적 효과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4)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16쪽 참고.

35) 권헌익·정병호, 위의 책 105-106쪽.

북한의 체제 유지에는 물리적 강제력도 물론 작용하겠으나, 북한은 극장국가의 특징인 상징과 의례를 통해 국가와 통치자의 정통성과 권위를 강화해 왔다. 북한에서는 최고지도자부터 간부들, 예술전문가들, 학생과 군인과 같은 인민들까지 모두 이 의례에 주기적이고 지속적으로 참여해 왔다.[36] 정병호는 북한 주민들은 '극장국가의 상징적 공연에 배우, 관객으로 참여하는 화려한 경험과 그와 현격하게 대비되는 어려운 일상생활의 경험을 되풀이하면서 공적-사적 영역, 공식-비공식 상황을 구획화하는 행동패턴을 익힌다'고 주장하며 공식-비공식 영역을 나누는 차단벽은 극단적으로 대비되는 이중적 현실을 유지시키고 있다고 본다.[37]

김정은 정권이 구시대적인 정치의례로 오늘날의 국가권력을 세습하고 정치적 권위를 재생산하는 행태를 지속한다는 것은 북한이 여전히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을까? 외형상으로는 김정은 시대 역시 거의 전 연령과 전 세대가 참여하는 대규모 의례인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을 지속하고, 김일성 동상에 대한 참배, 김정일이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백두산 밀영을 학생들과 군인들이 답사 행군을 가는 것 등을 보면 그 이전과 다를 것이 없다. 그러나 표피 이면을 들여다보면, 김정은 시대의 자기 인식, 미래 지향은 이전 시대와는 다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대집단체조에는 극장국가 북한의 모습이 총체적으로 구현되어 있다. 김정은 시대의 북한은 직면한 대내외적 압박 속에서 나름의 변용을 거쳐 새로운 시대극을 선보이고 있다. 북한이 처한 이중성은 김정

36)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8쪽.

37) 정병호, 위의 글, 34~39쪽 참고 및 인용.

은 정권에서도 사라지지 않았다. 국가가 기획하고 대본을 쓴 대집단체조에서 인민들은, 즉 위대한 지도자가 이끄는 '빛나는 조국', '인민의 나라'를 연기하거나 감상하고 있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여전히 상당수의 인민들이 김일성 시대부터 국가가 보장한다고 지속적으로 선전해 왔던 '이밥에 고깃국'조차 향유하고 있지 못한 이중적 현실을 지속적으로 직면하게 된다. 그러나 김정은 체제에서는 명명백백하게 '이밥에 고깃국' 같은 욕망의 해결은 그토록 수호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조국이 아니라 인민의 능력에 좌우된다. 이러한 간극에서 북한은 식민지적 현실에서 해방을 가져다준 민족적 영웅, 선군정치로 극복한 고난의 시대를 이끈 장군님과 같은 '과거'의 정통성에서 탈피해서 현대적이고 발전하는 조국을 가져다줄 보다 인간적인 지도자, '미래'를 통한 정통성을 보다 강조하게 된다. 이 지점에서 북한이 오랫동안 공적-사적 영역, 공식-비공식 상황을 구획화해 온 차단벽에 균열이 생긴다. 사적영역과 비공식 상황이 북한 주민 일상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사회주의문명국의 내용은 결국 북한판 '정상국가화'이다. 이는 더 이상 사회주의의 유일한 계승국가, 또는 선군정치와 같은 '아웃라이어'의 정체성으로는 세계의 변화에 뒤처질 수밖에 없다는 한계성의 자각에서 비롯한다. 말로는 사회주의문명국이라고 하지만 인민들의 물질적 생활수준 중시, 근대적 합리성과 효율성 중시, 정치사상적 우월성보다 경제적 발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일부 특이성에도 불구하고 대체로 정상국가의 지향과 유사하다. 결국 북한도 세계적 추세라는 외부적 시각을 의식하기 시작했고 그 시각에서 볼 때에도 꽤 그럴듯한 국가이고 싶어 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그리고 그 근본 기저에는 장마당을 비롯한 시장경제를 경험한 북한 인민들의 보편적

인 — 남들보다 더 잘살지는 못할망정 적어도 남들만큼은 살고 싶은 — '욕망'이 자리하고 있다. 더 이상 대집단체조의 제목이 정권의 정당성을 위해 만들어진 신화에 기댄 <아리랑>이 아니고 <빛나는 조국>이나 <인민의 나라>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6. 결론

극장국가 틀로 김정은 시대의 대집단체조 <빛나는 조국>을 분석해보면 '과도기' 북한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김정은 정권은 정치권력의 문화적 작동원리의 중추인 대집단체조와 같은 정치적 제의를 포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인민들의 욕망, 근대적 합리성과 효율성을 통한 국가발전의 희구 역시 무시할 수만은 없는 이중성 속에서 김정은 시대의 대집단체조는 변용의 과정에 있다. 다만, 그러한 변용의 끝은 결과적으로 북한 사회 내부 정치적 제의의 필요성에 대한 근본적 질문에 다다르게 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김정은 시대의 북한이 이를 어떻게 다뤄 나갈지 의문이다. 한편으로는 김정은 정권의 이러한 특성이 사회주의문명국이라는 말로 대변되는 북한사회 욕망의 지향이 과거와는 다른 북한의 자기 정체성이라고 볼 때, 김정은 시대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추구하는 남한을 포함한 국제사회의 접근법에도 일정한 시사점을 던져 주게 될 것이다. 정상국가를 추구하는 김정은 정권은 이전의 지도자와는 다른 북한을 통치하고 있기에 핵문제나 국제관계에서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일 가능성이 크다.

여전히 극장국가 체제를 국가 통치에 활용하고 있는 김정은 정권은 세습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그간 북한이 경제를 경시하고 인민을

희생해 온 대가가 컸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의 진정한 변화를 위해서, 정상국가화를 위해서는 세습 카리스마에 기대어 국가를 운영하는 극장국가 체제를 궁극적으로는 끝내야 한다는 데에 김정은 시대 극장국가 북한의 역설이 있다.

■ 접수: 6월 30일 / 수정: 7월 31일 / 채택: 8월 6일

참고문헌

1. 북한 자료

1) 단행본

김성모·탁성일·김철만, 『조선의 집단체조』(평양: 조선평양외국문출판사, 2002).

외국문출판사 엮음, 『빛나는 조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 70돐경축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평양: 외국문출판사, 2018).

2) 신문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조선로동당 제4차 세포비서대회에서 하신 연설," 『로동신문』, 2013년 1월 30일.

"우리 당의 선군정치는 필승불패이다," 『로동신문』, 1999년 6월 16일.

3) 기타

Paektu Cultural Exchange(백두문화교육사, 게시자), "<2005년 아리랑> 영상"(목란 비데오 촬영, 촬영일 2005년 8월 15일, 게시일: 2018년 8월 16일), https://www.youtube.com/watch?v=MousZCIQcWI(검색일: 2020년 4월 3일).

2. 국내 자료

1) 단행본

권헌익·정병호, 『극장국가 북한: 북한 카리스마 권력은 어떻게 세습되는가』(파주: 창비, 2013).

기어츠, 클리퍼드(Clifford Geertz), 『극장국가 느가라: 19세기 발리의 정치체제를 통해서 본 권력의 본질』, 김용진 옮김(서울: 눌민, 2017).

박영정, 『21세기 북한 공연예술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서울: 월인, 2007).

스미스, 헤이즐(Hazel Smith), 『장마당과 선군정치』, 김재오 옮김(파주: 창비, 2017).

정병호, 『고난과 웃음의 나라』(파주: 창비, 2020).

2) 논문

권갑하, “북한의 ‘대집단체조와 예술공연 〈아리랑〉 ’ 변화 양상 연구,” 『문화예술콘텐츠』, 제15호(2015), 5～50쪽.

이미숙, “북한 대집단체조의 변천 연구 - 정치사회적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문화기술』, 통권 27호(2019), 93～118쪽.

이우영, “북한 문화예술의 개념 및 역할,” 경남대학교 북한대학원 엮음, 『북한 문화, 둘이면서 하나인 문화』(파주: 한울, 2006), 19～35쪽.

이지순, “우리 국가제일주의의 문화예술적 표상과 시사점,” 『KINU Insight』, No.4(서울: 통일연구원, 2019), 1～27쪽.

정병호, “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통일문제연구』, 제22권 2호(2010), 2～41쪽.

통일부, “제7차 당대회 사업총화보고 분석”(통일부 정책보고서), 2016.5.9.

_____, 『주간북한동향』, 제1278호(2015.10.10.～10.16).

3) 기타

안윤석, “北 김정은, 12년의무교육제 앞두고 학생 가방공장 시찰”, 『노컷뉴스』, 2016년 1월 28일.

KBS, “만선의 꿈 vs 죽음의 항해…北 수산업의 두 얼굴”, 『남북의 창』, 2016년 12월 24일.

2. 국외 자료

1) 기타

Adi vlog(게시자), “The Glorious Country(＜빛나는 조국＞)”(촬영일 2018년 9월 22일, 게시일 2018년 10월 17일), https://www.youtube.com/watch?v=EkynBueBrIM (검색일 2020년 4월 5일)

brico4kids(게시자), “＜빛나는 조국＞ 영상(영어자막)”(촬영일 미표기, 웹 게시일 2018년 9월 25일), https://www.youtube.com/watch?v=1F42BzUHsnQ (검색일 2020년 4월 9일).

Abstract

A Study on the Social and Cultural Changes of the Mass Game in the DPRK – Focusing on 'Arirang' (2005) and 'The Glorious Country' (2018)

Jung, Haeyoung (Yonsei University)

The 'Arirang' mass games ran from 2002 but was ultimately halted after 2013. This was replaced by a new mass games in 2018 called 'The Glorious Country' and in 2019 it was titled 'The Country of the People'. Ironically, while the Kim Jong-un regime professes a national agenda to create a 'Socialist Civilized State' and Normal State, the regime has revived the most typical form of 'theater state'. Different from previous performances, in 'The Glorious Country', the people have a different status, such as being recognized as an individual that reveals their private desires. 'The Nation' is not anymore a specific person's achievement or possession like 'Kim Il-sung's Chosun'; rather, it exists for the people and aims to be a normal state. For the sake of regime

stability, the Kim Jong-un regime has not given up political proposals from the 'theater state' such as mass games. At the same time, the people's desire and the demand for national development through modern methods and efficiency are also in a situation that cannot be ignored. 'The Glorious Country' reflects the process of transformation to find a new DPRK identity.

Keywords: mass games, Arirang, The Glorious Country, people, nation, Socialist Civilized State, Normal State, Theater State